

중국 4대 소수민족의 환희와 고난의 역사

《황하에서 천산까지》 펴낸 김호동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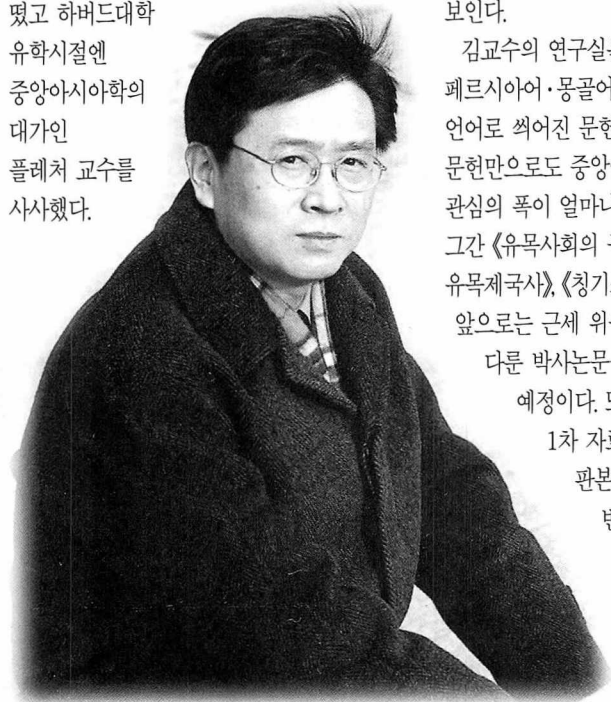


“추억은 수없이 많죠. 조강 사원에서 어린 딸을 옆에 두고 연신 절하던 티베트 아낙을 만난 일, 황하의 원류인 성숙해를 보러다 고산병에 걸린 일, 천산 북방의 울두즈 초원에서 올라다 본 수많은 별들...”

《황하에서 천산까지》(사계절)를 쓴 김호동 교수(45, 서울대 동양사학과)는 95년부터 매년 중국 전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는 4대 소수민족인 티베트 민족, 회족, 몽골족, 위구르족이 사는 땅을 둘러봤다. 바로 그가 연구하는 역사의 후예들이 사는 땅이었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대초원과 설산, 사막과 강장 사이에서 그들이 살아온 환희와 고난, 의지와 체념의 역사를 떠올렸다.

“지금은 같은 중화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중국과 이들 소수민족의 역사적 관계는 미묘합니다. 몽골처럼 한때 중국을 지배했던 민족도 있지만, 대부분은 끊임없이 패배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교수는 소수민족 원자료로 중앙아시아를 전공한 첫 세대다. 대학 재학시절, 고병희 선생의 지도로 중앙아시아에 눈을 떴고 하버드대학 유학시절엔 중앙아시아학의 대가인 플레처 교수를 사사했다.



중앙아시아의 풍광이 여느 사람과 다르게 다가온 것은 당연한 일.

처음에는 기행문을 생각했지만, 그들의 역사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 기행문의 외투를 입은 역사에세이로 바뀐 이 책은, 전공자만이 쓸 수 있는 방대한 지식과 다채로운 읽을거리를 흥미롭게 전개한다. 송광사에 보관된 이상한 문자의 고문서는 멀리 티베트에 와 그 비밀을 벗고, 1983년 도시개발에 반대해 난주의 도수평에 모여든 수백 명의 노인에게 관한 이야기는 200여년 전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회교도 마명심의 역사적 죽음으로, 또 임중 직전까지도 마명심을 연구한 스승 플레처 교수에 대한 일화로 연결된다.

“우선 그들의 낯선 역사를 일반인들에게 소개하자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 중에서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를 뽑았죠. 또 중국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역사를 살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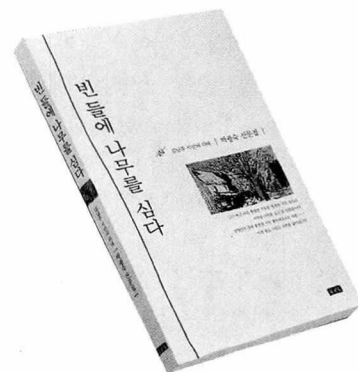
김교수는 이렇게 소수민족의 눈이 아니라 중국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동양적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말한다. 중국의 시각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역사가 보인다.

김교수의 연구실은 러시아어·터키어·페르시아어·몽골어·위구르어 등 다양한 언어로 씌어진 문헌들로만 가득하다. 그 문헌만으로도 중앙아시아학에 대한 그의 관심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다. 그간 《유목사회의 구조》,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칭기스칸》 등을 번역했는데 앞으로는 근세 위구르의 지도자 야쿱 백을 다룬 박사논문을 수정해 출간할 예정이다. 또 몽고제국과 관련된 1차 자료들을 소개하고 좋은 판본으로 《동방견문록》도 번역할 계획이다.

— 김연수 기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시인의 아내

《빈들에 나무를 심다》 펴낸 박광숙씨



“노동에서 멀어질수록 인간은 동물에 가까워진다/보라 논과 밭에서 도시의 일터에서 멀리 떨어져/남의 노동으로/하루를 살고 달포를 살고 삼백예순날을 사는/그런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김남주의 시 〈노동과 그날그날〉 중에서).

역사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익사한 시인은 이 시를 입에 달고 살았다. 10여년 감옥생활 끝에 강화도에 정착해 노동의 신성함을 즐기던 시인은 끝내 땅으로 돌아갔다. 그와 함께 일년쯤 노동의 즐거움을 만끽했던 부인 박광숙(48)씨는 강화 땅을 오롯이 지키는 농사꾼이 됐다. 비운의 역사를 지닌 강화에서 살기 위해 스스로 ‘뽕뽕 강화녀’ 이 된 그녀는 짧은 서간체 에세이 《빈들에 나무를 심다》(푸른숲)를 통해 땅을 일구며 살아온 지난날의 궤적과 살아갈 날에 대한 다짐을 풀어놓는다.

“처음 시골로 내려올 때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잘했다 싶습니다.”

노동을 하면 할수록 그녀는 무명의 세계로 빠져든다. 힘든 노동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삭혀주기도 하고 자연에 대한 경이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비록 작은 땅에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꾼의 건강함을 알게 된 그녀는 새삼 도시에서의 삶이 무의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도시에서 살았다고 우월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귀향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마을 사람들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노동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법 농사꾼이 된 그녀는 이웃들과 동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아들 토일을 통해서도 느낀다. 아버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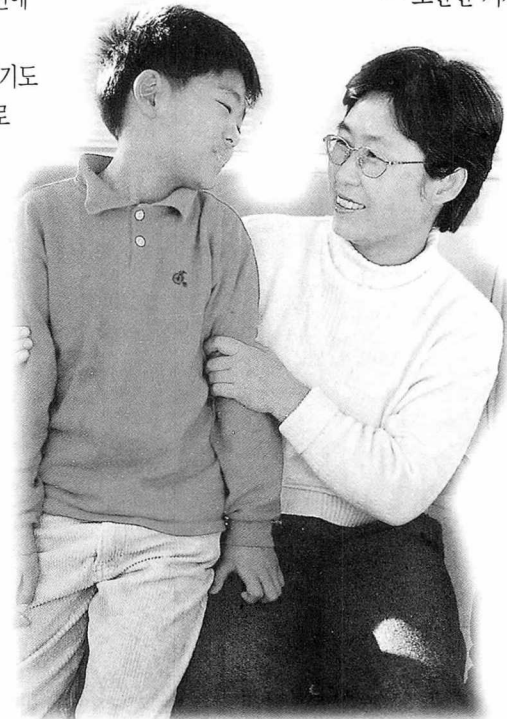
떠나보내고 너무도 상심해 있던 토일이 이제는 누구보다도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역문화와 교육을 공유할 수 있다면 굳이 아이를 도시로 보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봄이 되면 순무·고추·얼갈이·근대·부추, 그리고 완두콩·오이·가지 등을 많이 심을 생각이다. 유난히 맛있는 서리태(콩)도 심어 가을이 되면 고마운 사람들과 나눠 먹으려 한다. 꽃도 심고 나무도 심지만 농약은 절대 뿌리지 않을 작정이다.

“농약 없이 농사짓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낫질 몇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름 없는 풀 한포기, 재잘거리는 새와 더불어 자연 그대로 사는 삶이 바로 남편과 제가 꿈꾸는 세상이니깐요.”

남편 없는 사막을 노동의 힘을 빌려 건너온 그녀는 올해도 봄이 오면 가알갈! 피꿀! 피꿀! 노래하며 허밍하는 피꼬리 소리 따라 나무를 심을 생각이다. 짝이 나는 대로 글도 쓰는 그녀의 봄이 자연과 더불어 푸른 빛을 발한다.

— 오완진 기자



20·30년대 문화를 통해 본 현대성

《현대성의 형성 - 서울에 판스홀을 허(許)하라》
펴낸 김진송씨

경기도 마석의 김진송씨(40) 작업실에는 나무들이 쌓여 있다. 이번 수해에 떠내려온 나무들을 주워다 모아놓았는데, 그것으로 강아지 모양의 의자를 만들고, 돌고래형 스탠드도 만들어 놓았다. 물건을 만들면서 생기는 톱밥과 부스러기 나무들은 난로로 들어가 알뜰하게 쓰인다. 《현대성의 형성 -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현실문화연구)를 쓴 김진송씨는 나무의 윤희를 완성하는 목수다.

“‘현대성’의 문제는 근대 미술을 공부할 때부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니 개항과 같은 정치·경제적 사건으로만 근·현대를 가르는 역사주의적 관점에 정면으로 맞선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많은 관심을 모았다. 어떤 이는 “안심하고 인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연구서”라고 칭찬했고, 또 다른 이는 “현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6년 정도 도서관을 뒤졌습니다. 마이크로 필름의 일그러진 글자들을 읽으면서 현대성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자료들을 모았지요.”

여기서 말하는 현대성은 동시대적 유사성을 전제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시대를 거슬러올라가다 보면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일상적 삶에서 발견되는 순간이 있고, 그때부터를 ‘현대’라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가 파악하기에 1920·30년대가 바로 그때다.

“20·30년대 ‘모던 걸·모던 보이’는 지금의 압구정동 오렌지족과 뉘앙스가 비슷하고, 우리 지식인의 룸펜기질과 데카당한 분위기 역시 그때 비롯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대중문화의 형성과정과 유행양태, 여성관의 변화, 도시적 삶, 육체와 성을 둘러싼 시각의 변모 등을 보여주는 당시의 신문·잡지 기사, 만화, 사진 등 풍부한 시각자료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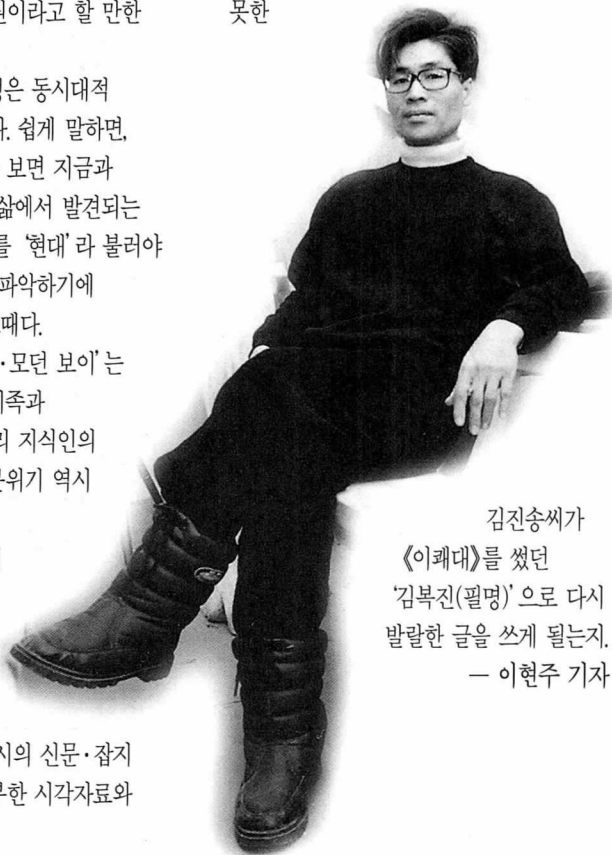
원문자료를 수록했다. 부제로 쓴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는 1937년 《삼천리》에 기생과 다방마담이 서울의 경무국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의 제목이다.

“학계에서 이뤄지는 관념적인 문화 연구의 변방에서 돌을 던지는 일이지요. 지식인들이 변방에 있어야(marginal man) 세상이 넓어집니다.”

그는 《가나아트》의 편집장과 주간을 맡아 새로운 미술개념을 세웠고, 출판사 ‘현실문화연구’를 통해 문화담론의 새 장을 열었으며, 제2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일상·기억·역사’전을 통해 미술작품의 경계를 허물었다. 지난 해에는 목수를 시작한 지 6개월만에 《목수 김씨전》을 열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모두 변방에서 아카데미의 전당에 돌을 던지는 일이었다.

“공부는 더 안할 겁니다. 먹고 살려면 생업에 매달려야지요.”

지식인이라면 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혹시 모르겠다. 돌 던지는 재미를 잊지 못한



김진송씨가 《이쾌대》를 썼던 ‘김복진(필명)’으로 다시 발랄한 글을 쓰게 될는지.
— 이현주 기자

알면 사랑하게 되는 개미세계 이야기

《개미제국의 발견》 펴낸 최재천씨



거시 문명세계를 벗어나 미시 생태세계로 눈을 돌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불청객들이 주인의 암호를 해독해 노예들로부터 음식을 갈취하는가 하면, 음식과 숙식을 제공하면서 파수꾼을 고용하는 식물도 있다. 서울대 생물학과 최재천 교수(45)가 쓴 《개미제국의 발견》(사이언스북스)은 인간세계와 흡사한 개미제국의 생태를 생동감 있게 그려 엄밀과학으로 쓴 한편의 우화소설로 읽힌다.

“인간이 문명세계의 지배자라면, 개미는 자연세계의 지배자입니다. 개미는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동물이지요. 물속이나 고산지대, 그리고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개미가 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아마존 열대림에서 서식하는 모든 동물을 표본추출해 중량을 측정할 적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개미와 흰개미가 전체 동물중량의 1/3을 차지했습니다.”

이 책은 개미사회의 경제구조부터 사회 및 문화, 그리고 정치체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세계와는 또 다른 차원의 우주를 보여준다. 개미사회는 인간보다 훨씬 먼저 농작물 재배와 낙농을 시작했고 고도의 분업체제는 물론 다국적 기업의 형태까지 다양한 경제활동을 영위한다. 인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전쟁을 일으키며 대량학살의 만행도 저지른다.

“개미는 인간집단과 가장 흡사한 존재입니다. 특히 고도의 사회성을 지닌 것이 결정적인 공통점이지요. 따라서 인간은 개미사회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개미사회를 묵고 있는 핵심은 바로 ‘희생정신’입니다. 개미사회는 일개미들의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지요. 또한 개미사회는 최적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교수는 두번에 걸친 숙명적 만남을 통해 동물행동학자의 길을 찾았다. 문학청년을 꿈꾸던 고등학생 시절 솔제니친 전집에서 만난 〈모닥불과 개미〉라는 짧은 수필은

잊혀지지 않는 감동으로 기억되었다. 대학 4학년 때 유타대학의 조지 에드먼즈 교수와의 만남은 결정적이었다. 하루살이의 대가였던 그와 1주일 동안 동행하면서 자연을 탐구하는 학자의 삶에 감동받았다. 그의 도움으로 펜실베이니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동물행동학을 연구했다. 94년부터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로 부임해 사회성 곤충의 행동과 생태를 연구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과 환경을 배려할 줄 아는 문명의 지배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더 많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면 결국 자연을 해치지 않겠지요. 일반인들과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알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최교수는 과학 대중화를 위해 올해 자연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발족했다. 최신과학 이론인 《다윈의학》의 번역을 마무리중이고 97년에 《한겨레》에 연재했던 다윈의학에 관한 칼럼도 보완해 책으로 묶을 예정이다. — 박천홍 기자

